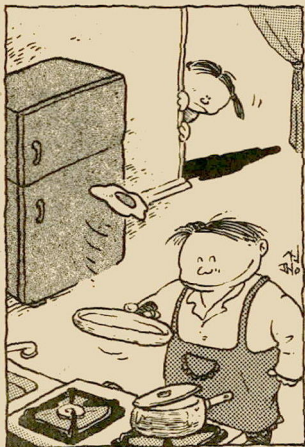


우리는 맞벌이부부이다. 그런데 나는 집에서 만화를 그리고, 아내는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일반 맞벌이부부와는 달리 남편인 내가 안사람(?)인 셈이다.

그렇다고 집안일을 모두 내가 떠맡아하는 것은 아니고, 음식 만드는 일이 나의 몫이다. 왜냐하면 나는 원래 식도락가여서 그런지 직접 음식을 만들어 먹기를 매우 좋아하기 때문이다.

집이 작업장이기 때문에 국민학교 1학년인 딸아이의 점



심밥을 내가 챙겨주는 경우가 많다. 딸아이는 아빠가 만들어주는 음식을 맛있게 먹는 편이다.

그런데 어느날 시무룩한 표정으로 학교에서 돌아왔다. 그 이유를 물으니 “오늘 친구들과한테 ‘나는 매일 우리 아빠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준다’고 자랑을 하니까 친구들이 ‘박나래는요 아빠가 밥을 준대요’라며 막 놀렸어요”라고 말했다. 딸아이는 다른

아빠가 해주는 밥

친구들과는 달리 아빠가 음식을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자랑스러웠던 모양이다. 그런데 오히려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았으니...

그래서 나는 딸아이에게 “나래야, 친구들은 엄마만 음식을 챙겨주지만, 너는 엄마와 아빠가 함께 음식을 만들어주니 얼마나 좋으니? 아마 친구들이 부러워서 그랬을 거야”라며 달래주었다. 나의 이 말에 딸아이는 금세 얼굴이 환해졌다.

오늘 딸아이와 이런 대화를 나누며 ‘어릴 때부터 남녀 평등의 사고방식을 심어주는 교육이 정말 절실하다’는 생각이 다시 들었다.

박 성 규 <대구시 남구 대명4동 3001-17>

◇투고요령 △분량=2백자 원고지 4장 △주제=자유 △보낼 곳=121-020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16-25 한겨레신문사 생활환경부 생활이야기 담당자, 팩스 (02)710-0380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은행 온라인통장번호를 정확히 적어주십시오.